

칠레: 대학생들이 지진을 이긴다

오푸스데이회 소속인 로스안데스 (Los Andes) 대학생들이 대진과 스나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시작하였다.

2010-3-7

학생회 봉사단은 두가지 방법으로 칠레 대진의 피해자들을 돕고있다.

*** 모금:** 대학 도서관에는 식수와 옷, 침구류를 모으고 있고, 제약회사의 도움으로 약을 모으고 있다. 이곳에서 모인 물건은 8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고엘레무 마을로 보내질 것이다. 그곳에서는 로스안데스 교수 3명이 구호활동을 돕고있다.

*** 봉사:** 로스안데스 공대 학생회는 500명 이상의 학생을 세로 나비아 지역에 파견 하였다. 구호 활동중에서는 가정방문과 기초 건축에 중심을 둘 계획이다.

칠레 지진 성금 모음은 이 구좌로 할 수 있다

Fundación CasaBásica

Banco Security.

Cuenta Corriente: E-0844861-01,

Rut: 65.725.900-4

SWIFT CODE: BSCLCLRM

Santiago, Chile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cilre-daehagsaengdeuli-jijineul-iginda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cilre-daehagsaengdeuli-jijineul-iginda/)
(2026-2-5)